

호스피스
월례회

잃은 양 한마리를 찾듯이...



호스피스 9월 월례회가 9월 29일(토)에 열렸다. 부임 후 처음 참석한 박원호 담임 목사는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팀이 생명을 돌보는 사역에 적극 봉사를 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였다.

요한복음 10장10절의 말씀으로 교회 모든 사역 중에서 호스피스 봉사가 기초가 되는 사역이라 말씀하며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역이며 주님과 늘 함께하여야 가능한 사역이라 했다.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한 사

신형섭기자

틀리다 [wrong]란 뜻이에요

오른손 검지와 중지들 겹쳐
눈 밑에서 핑기면 틀리다란 뜻이에요

함즐함울
기사모집

주님의 교회성도들의 기쁜 소식이나 슬픈 소식을 함께 기도하며 위로와 격려하기 위한 코너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아가탄생이나 병환 중인 교우들의 소식을 알려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함즐함울 김기용 010.9600.2664 hamnews2006@naver.com

썩트네 소식

기도하는 썩트네의
행복한 가을



썩트네는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모여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예배드리는 교육 부서입니다. 썩트네의 선생님들은 기도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시작 전 다 같이 모여 기도으로 준비하고 예배 후에도 아이들을 위한 기도모임을 거르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에도 교사 전원이 일주일 동안 새벽에 모

뽀간 봉숭아물을 들고 기도하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예쁜 천사들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봉숭아물 들어진 예쁜 색깔만큼이나 고운 꿈을 가득가지고 자라나길 바랬다. 기도하는 고사리 같은 손이 커지면서 그 꿈도 커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곱게 자라가려... 욕심 없는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말이야... 예쁘구나! 첫눈이 올 때쯤이면 손톱 끝에 봉숭아가 지워지겠지? 하얀 눈처럼 맑고 투명한 천사들...

신형섭기자

여 기도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도과 말씀만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이 선생님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믿음과 사랑 덕분에 썩트네의 아이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썩트네의 예배시간은 늘 웃음과 감동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썩트네의 아이들은 주일의 예배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훈련받습니다. 3세부터 7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예배하지만 혼잡하거나 산만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도 힘든 것 같은 3세 아이들도 7세 언니 오빠들을 본받아 열심히 찬양

Misson 학줄함울,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누레지다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천고 마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높고 파란 가을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오늘은 노랗게 익어가는 벼 색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노랗다'를 '누렇다'고도 합니다. 익은 벼와 같이 다소 탁하고 어둡게 누른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그 '누렇'에 '어'가 붙으면 '누레'가 됩니다. 따라서 노랗게 되는 것은 '노래지다'고, 누렇게 되는 것은 '누레지다'가 맞습니다. '누레지다'가 맞을 것 같지만 모음조화를 지키는 것으로 봐서 '누레지다'가 맞습니다. 하예지다/허예지다, 뽀예지다/뽀예지다도 모음조화를 따르 겹니다.

주관: 주님의교회 전수습사역

2007. 10. 21. 3시~5시(pm)

대상: 주님의교회 전교인 장소: 1층 소예배실

갱년기... 여성건강 강좌

골다공증과 유방암 중심으로

2007. 10. 21. 3시~5시(pm)

대상: 주님의교회 전교인 장소: 1층 소예배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5:1-2

통 권 제 215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07년 10월 7일

나를
기념하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11:24-25)

성찬식에 대한 나의 마음자세를 돌아보게 된다. 어느새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내게 주님은 말씀 하신다. '나를 기념하라.' 아무나 기념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초청받은 사람만이 정해진 좌석에 앉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 공로도 없는 나를 주님의 성찬에 초청해 주신다. 예복도 갖추어 입지 않고 부산한 마음을 가라앉히지도 못한 나를... 이 세상에는 많은 기념식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은 기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하는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11:26) 나는 얼마나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엄혜숙 기자

아버지의 매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신다. 다 내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자식의 잘못에 아버지는 대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신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누구의 탓도 하지 않은 채 다 내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교회
소식

2007년 어르신 잔치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친교와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고 유익한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추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 사: 2007년 10월 9일(화) 11:30-14:30 / 장 소: 교회 지하 식당

중보기도 사역팀 전체 수련회

중보기도 사역팀이 주관하는 1일 전체수련회가 열립니다. 중보기도 사역팀은 "중보기도 사역자 세미나"를 이수하고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친 후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합니다. 기도 제목의 비밀을 존중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하는 중보기도자들에게 이러한 훈련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번 중보기도 전체 수련회는 공개강좌로 열립니다. 장소 및 식사준비를 위해 10월 7일 오후 2시까지 신청자를 접수 받습니다.

주 제: "깨어 기도하라"-기도란 무엇인가? 중보기도의 필요성
일 사: 10월11일(목) 13:00-15:00
장 소: 1층 소예배실
강 사: 박춘태 목사(중보기도 사역 전문 강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담임)
접 수: 1층 로비 안내 데스크
문 의: 안경희 집사(011-9097-5265), 김형기 권사(019-269-5306), 이 호 목사

로 템 나 무

질그릇 속의 보배

지난 주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메스컴은 온통 이와 관련된 기사로 가득 찼다. 그중 재미있었던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관한 추측기사였다.

'당뇨병의 합병증 현상으로...7년 전에 비해...허약, 수척...' 회갑을 넘긴 사람이 7년 전보다 덜 건강해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오히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여전히 늙지 않은 모습이 더 부자연스럽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늙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결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후4:16)

신앙의 성숙은 나이를 더함으로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체, 즉 질그릇 가운데에 감추어져있던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지는 것, 나의 계획과 힘이 감추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힘이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더욱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현령 목사

박원호 목사 주일설교 2면

2007 양육클래스 3면

호스피스 월례회 4면

썩트네 소식 4면

온전한 신앙Ⅳ

“온전한 십자가”

예레미야 31:31~33, 갈라디아서 2:20~21

십자가 사건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생명을 죄에서 구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죄로 이미 물들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식을 대신한 아버지의 사건입니다. 그것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몇 주 전부터 온전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소망’, ‘온전한 말씀’...이러한 말씀의 묵상은 자연스럽게 십자가로 생각을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고백이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소망의 이유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십자가가 저의 전부입니다.’ 바울은 무려 7번이나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대하는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전율함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자신의 굳은 결단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온전히 예수만 믿고 살 것입니다. 예수만이 바울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제 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정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의 사건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이제 두 번째 큰 질문입니다. 무엇이 십자가 사건입니까?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삼습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죽은 끔찍한 형틀입니다. 로마인들도 자기 국민에게는 이 형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십자가를 기독교는 중심 상징으로 삼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어느 한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사건만도 아니고 일평생 배우고 일평생 고백하고 일평생 신앙으로 살아야 할 사건입니다. 교회가 항상 십자가를 강대상에 걸어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십자가 사건입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 두 사건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만찬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갯세마네 동산의 기도 사건입니다.

성만찬과 갯세마네

성만찬은 말 그대로 만찬입니다. 풍성함과 기쁨이 있는 잔치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있는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12시간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시간에 만찬을 배울 수 있습니까? 더욱이 주님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이 어찌 할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땀을 뚝으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내 살이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 내 피가 이렇게 부어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찬을 마친 신 뒤에 허리를 굽히시더니 친히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천한 일이요, 가장 천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종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갯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뒤에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 가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든 말씀의 지식과 모든 진실을 동원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찾아야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생명을 죄에서 구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죄로 이미 물들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식을 대신한 아버지의 사건입니다. 그것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셨습니까? 새 옷을 입는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으로 덧입힌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살이 새롭게 되어야하고, 피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몸속에, 핏속에 죄가 있습니다. 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는 온전히 쏟아져야 합니다. 이제 이 살과 피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발을 씻기셨습니까? 왜 종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모든 조롱을 다 겪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우리의 생명을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내 생명을 잉태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갯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까? 왜 그 곳에서 고통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다면 그 분은 진정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트는 아시아 국가에 있는 불교 사원 몇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부좌를 틀고 입가에 잔잔하고 고요한 미소를 지닌 불상 앞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불상 대신에 십자가 위에 있는 외롭고, 뒤틀리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등은 찢어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이마는 가시에 찢려 피가 흐르고, 입은 바짝 마른 채 목이 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 속에 던져진 그 분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과 죽음으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고 그리고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온전한 사랑이요 온전한 은혜입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맺으시는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맺으신 생명의 계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 다윗과 맺었던 계약,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서로 식탁에 함께 앉아 떡을 떼 것입니다. 함께 포도주를 나눌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적대감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도 다 끝났고, 죽음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끝났습니다.



2007 양육클래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양육클래스 에베소서

“창세전에 확정된 하나님의 구원계획”



매주 목요일 오전은 양육클래스 '에베소서 집중연구' 강좌가 열리는 날이다. 지난 4월 10시 30분, 지하 찬양연습실은 빼곡히 수강생들로 가득 찼다. 단란 심령을 깨우는 듯이 우렁찬 박의일 목

사의 찬양 인도로 강의는 시작되었다.

박의일 목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해 보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로마서'와 달리,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술되었으며, 따라서 이 두 복음서는 함께 보완하며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베소서 1장 3절~6절의 말씀을 통해,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못남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

는다고 전했다.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십자가의 피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이는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비유된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는 못했다. 가나안 앞에 있는 광야는 우리에게 크나큰 시련과 역경을 주지만,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12시 즈음, 성령의 충만한 열기 속에 진행된 에베소서 집중연구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끝을 맺었다. 구원의 확신 때문일까, 지하 찬양연습실을 나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한층 가볍고 경쾌한 듯 보였다.

최사라 기자

양육클래스 2007 피택자 교육

“몸은 피곤하나 표정은 행복”



주일 늦은 오후 대부분의 교우들이 귀가한 시간, 3층 소년부실에 남녀 피택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다. 서로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었지만 교회의 곳곳에서 보아왔던 터라 곧 친밀감을 느낀다.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마치 대학에서 수강시간표를 확인하듯 벽에 붙여진 주방 봉사를 비롯한 봉사실습시간을 확인하느라 한결 분주한 모습들이다. 벌써 주방봉사를 마치고 작업복 차림으로 온 피택자들...몸은 피곤해 보이나 행복한 표정이다. 마치 현장을 체험하여 그 부서의 어려움을 조금은 공유할 수 있었다는 듯이...

이날의 피택자교육은 주일 예배시 드리는 공적 기도와 임직자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대표기도는 3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더욱 말씀을 가까이하고, 섬기는데 본이 되어야 함은 물론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에 관한 강의를 듣고 다시금 게을렀던 나의 신앙생활을 깨우치게 되었다.

60여명이 연말까지 약 10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알아 가기 위해 매주 6명씩 자기 소개를 하기로 하였다. 서로를 알기 위해 경청하며 특징을 메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의 차례가 되면 무엇으로 나를 소개할까?”

“세상의 직업, 가족, 신앙 경험...”

모두들 스며드는 은근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았다.

김낙균 집사(1-15)

양육클래스 선교학교

선교사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선교의 장으로 부르시는데 직접 나가는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보내고 후원하는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한다. 모두가 나간다면 그들을 지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막상 나가는 선교사들은 사역을 잘 하고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후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른다. 막연히 기도하고 헌금하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언어는 어떻게 배우는지, 생활을 위한 고령적인 수입은 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진학하는지, 문화충격 속에서 겪는 갈등과 선교사들 간의 문제, 후원교회나 단체들과의 문제 등등

막상 후방에서 기도하고 헌금하며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지원사역을 위해서는 선교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학교에서는 이번 2학기 동안 주로 선교사를 이해하고 선교의 흐름을 배우는데 역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은숙 선교사님(한국 OMF 대표)과 손창남 선교사님, 이모세 선교사님(DSI 대표) 세 분을 모시고 세계 선교의 흐름과 선교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선교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 동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선교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제3집회실에서 시작되며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 기도모임이 매월 첫 주일 오후에 열린다. 손영익 안수집사(3-2)